

## “동생 얼굴 41년 만에 보니 울컥”

1980년 5월 초등학교 4학년 때 5·18 계엄군 총탄에 숨진 전재수 가족 유품 정리하다 사진 찾아내 유족회, 5월 5일 어린이날에 무궁화 대신 사진 새겨 모비 제막식 유족 “어린 영혼에 충을 쓰다니...”



2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전재수군' 묘비 옆의 세라믹 영정패에는 얼굴 사진 대신 무궁화 사진이 새겨져 있다. 41년만에 찾은 전재수군의 사진(오른쪽) <5·18민주화운동 유족회 제공>

매년 5월, 5·18 민주묘지를 찾는 정·관계 참배객들이 현화·분향을 한 뒤 둘러보는 묘역 중 한 곳이 고(故) 전재수군 묘지다. 전 군은 광주 효덕초 4학년이던 지난 1980년 5월, 포래 친구들과 마을 앞산에서 놀다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사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막내아들 독사진은커녕,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갖춰놓지 못했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국립 5·18 묘지에 막내 아들을 묻으면서 얼굴 사진 대신, 무궁화만을 그려넣었다. 전 군의 묘지와 5·18 국립묘지 유영봉안소, 홈페이지 등에도 그의 얼굴 사진은 새겨지지 못했다.

40년 넘게 비어있던 전 군의 묘비 영정사진 자리에 ‘잃어버렸던’ 얼굴 사진이 새겨진다. 전 군이 가장 좋아했다는 어린이날에 맞춰서 제막식도 연다.

5·18민주화운동유족회는 오는 5월 5일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역에서 11살의 어린 나이로 계엄군에게 희생된 전재수군의 사진을 새겨넣은 묘비 제막식을 진행한다.

전군의 친형인 재룡(60)씨가 41년 만에 동생의 얼굴 사진을 찾아내면서다. 전군의 형은 지난 1월 부친의 기일에 앨범 속 사진 등 유품을 정리하다 겹쳐진 사진 속에서 40년 전 동생의 옛날 얼굴 사

진을 찾아냈다. 사진에는 돌아가신 부친과 고모, 총탄에 희생된 동생의 모습이 들어있었다. 형 재룡씨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새 옷을 입은 동생이 아버지, 고모들과 함께 찍은 것으로 기억했다. 재룡씨는 “부친이 평생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년 5월이면 얼굴 사진 하나 없는 동생 묘지를 보는 게 마음에 걸렸던 형은 국립묘지 측에 기존에 걸려있던 ‘무궁화 사진’을 새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립묘지측은 지난 3월 우선적으로 유영봉안소 사진을 교체했고 홈페이지에도 사진을 집어넣었다.

5·18유족회는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유족들과 제막식을 갖기로 했다. 당시 초등학교이던 전재수군이 좋아하던 날에 맞춰 그의 웃는 얼굴을 새겨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견이 모아

졌다.

전군 아버지인 전영병씨는 지난 2000년 고인이 되기 전, 아들이 희생당하던 상황을 구술로 남겨놓은 바 있다. 아버지의 구술에 따르면 전군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이 악화되면서 임시휴교령이 내려진 1980년 5월 24일 포래 친구들과 마을 앞산에서 놀다 참변을 당했다. 11공수 특전여단과 7공수 특전여단은 이날 명령을 받고 송정리로 향하던 중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과 무차별 총격전이 이뤄졌다. 전 군은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과 이뤄진 오인 사격 과정에서 허리에서 대퇴부 사이에 여섯 발 이상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군인들이 마을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사격할 때 산에서 놀던 아이들은 총소리에 무자정 도망을 쳤고 이때 재수군도 뛰어가다 벗겨진 고무신을 주우려고 뒤 돌아 선 순간 총격에 희생당했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정세균 전 총리 ‘대권 호남 행보’ 시작

5·18 민주묘지 참배

“K 회복 통해 일상·경제 회복”

총리 퇴임 후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박3일 일정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행보를 시작했다.

정 전 총리는 2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와 전남을 돌며 지지자들과 지지단체 등을 잇따라 만나면서 호남 민심을 살필 예정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많은 인재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치고 적극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그분들과 기발코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은 문제인 정부의 개혁 완성이고 국민들

을 위해 민주주의와 희망찬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평등을 극복하는 ‘K 회복’을 통해 일상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광주·전남 사·도민 여러분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이었다”면서 “앞으로 광주·전남이 민주주의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가는 K회복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광주·전남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29일까지 광주와 전남을 오가며 대하강연과 지지모임, 지지자들을 잇따라 만날 계획이다. 또 금남로 등을 돌며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일정도 잡혀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오늘 준공

23년 만에 국내 건설 자동차 공장 9월 양산체제·연산 10만대 목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M)가 착공 1년 4개월 만에 역사적인 준공식을 연다. 2014년 7월 첫 계획이 나온지 7년여 만이자, 2019년 12월 착공식 후 1년 4개월 만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9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역사적인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양산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완성차 공장으로는 1998년 르노삼성 자동차 부산 공장 이후 23년 만이다.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기업으로 출범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 시 광산구 덕림동 빛그린산단에 대지 면적 60만 4000㎡, 건축면적 9만6000㎡ 규모로 1000cc급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SUV)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향후 4~5년간 가솔린 차량 조립 등을 통해 완성차 제작기술을 연마한 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 기업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며, 차 뼈대를 만드는 차체 공장과 친환경 도색 시스템을 갖춘 도장공

장, 최첨단 조립공장 등 3개의 공장을 갖추고 있다.

준공식에 앞서 4월 초부터 시험생산 중이며, 오는 9월 양산체제를 갖추면 시간당 최대 28대, 연간 10만대를 생산한다. 시험생산 기간 자동차 성능과 품질 및 안전 테스트 등 다양한 시험을 거쳐 최고 품질의 완벽한 자동차를 선보이겠다는 게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포부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국내 최고의 첨단 시설에 친환경적이고 유연성을 갖춘 생산체제로 운영된다. 현재 생산 계획인 경형 SUV에서 시장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차종을 다양화하거나, 일정 설비만 변경하면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해 생산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이건희 컬렉션 광주·전남 기증 작품	▶16면
KIA, 나지완 빠진 외야 아우성이 지킨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입니

## 다

어떠한 신호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우선 멈춤!

**배려하는 광주  
교통문화 캠페인**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광주경찰청